

유럽연합과 독일의 언어정책

황도생
(한국교원대학교)

1.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미국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 영어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공용어의 역할을 떠맡으며 미국화에 앞장서고 있다.

David Crystal에 의하면, 한 언어가 세계어로 도약하는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힘이다. 이 힘은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Bismarck는 1888년에 현대사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아메리카인들이 영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¹⁾

이렇게 힘과 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영어는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며 세계 공용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학자들은 영어로 논문을 써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기업들은 영어로 회의를 하고 문서를 교환하며, 노동자들은 영어를 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European Union: EU)에는 25개 국가가 가입했고 20개의 언어가 공식언어(Amtssprache/official language)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는 EU시민은 영어로 대화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영어는 서서히 EU의 공용어가 되고 유일한 의사소통어가 될 것이다.

EU는 유럽을 경제적·정치적으로 통합하여 미국, 중국, 일본과 맞설 강력한 블록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언어적 다양성을 영어로부터 지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회원국들도 모국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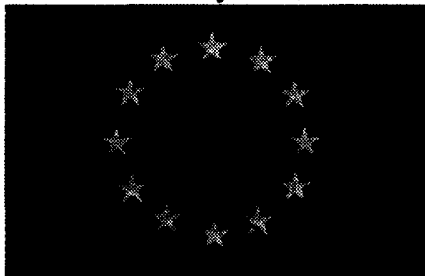
이 발표에서는 먼저 EU의 성립과 EU의 국가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고찰한 다음, EU의 언어정책과 독일의 언어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유럽연합의 역사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계속된 일련의 유럽 통합 노력 끝에 탄생했다.

1) 참고, David Crystal(2004), The Language Revolution,

- 출발점 - 프랑스 외무장관 Robert Schuman :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창설 제창(1950)
- 1952 - **Belgium, France, Germany,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 ECSC를 출범 시키면서 EU의 역사가 시작됨. - 6 개국
- 1957 - 로마 조약 : 유럽 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Euratom)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창설.
- 1965 - 브뤼셀 협약 : ECSC, Euratom, EEC의 위원회, 각료회의 공동회의, 사법재판소 등이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EC) 속에서 통합됨.
- 1973 - Denmark, Ireland, the United Kingdom 가입. - 9 개국
- 1981 - Greece 가입. - 10 개국
- 1986 - Spain, Portugal 가입. - 12 개국
- 1990 - 독일통일로 영역 확대.
- 1992 - **Maastricht 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단일 화폐, 공동 외교·안보 정책, 공동시민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민·난민·사법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규정함.
- 1995 - Austria, Finland, Sweden 가입. - 15 개국
- 2002 - **EURO 통용** : Belgium, Germany, Greece, Spain, France, Ireland,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Austria, Portugal, Finland. (England, Denmark, Sweden 제외)
- 2004 - Cyprus, the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Slovenia, Slovakia 가입. - 25 개국
- 2007 - Bulgaria, Romania 가입 예정.
Turkey - 후보



※ 푸른 바탕에 12개의 황금색 별이 원을 이룸
12개의 별 - 완성, 완전; 12달, 12시간
원 - 통일, 민족들의 연대성과 조화
1985 - EU(전신 EG)의 상징물로 채택
EU 국가 - Beethoven No 9 (텍스트 없이)

"United in diversity" - EU의 모토

3. 유럽연합의 언어

1. 유럽연합 15개국의 언어²⁾(2004년 5월 전까지)

EU의 국민들이 가진 언어 능력을 공식언어(Amtssprache/official language)에 따라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모국어	비모국어	합계
Deutsch	24%	8%	32%
Français(Französisch)	16%	12%	28%
English(Englisch)	16%	31%	47%
Italiano(Italienisch)	16%	2%	18%
Español(Spanisch)	11%	4%	15%
Nederlands(Niederländisch)	6%	1%	7%
Elinika(Griechisch)	3%	0	3%
Português(Portugiesisch)	3%	0	3%
Svenska(Schwedisch)	2%	1%	3%
Dansk(Dänisch)	1%	1%	2%
Suomi(Finnisch)	1%	0	1%

위의 표에서 모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독일어가 24%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고, 프랑스, 영어, 이탈리아어가 16%로 같다. 이어서 스페인어가 11%이다.

모국어 상용자와 비모국어 사용자를 합쳐서 살펴보면, EU에서 영어는 47%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다. 영어는 유럽 인국 16%의 모국어이지만, 유럽 시민의 31%가 영어를 제2 또는 제3 외국어로 대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영어를 잘 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EU 시민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셈이다.

영어를 제외하면,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순위는 대략 인구의 순위와 같다. 독일어는 EU시민 24%의 모국어이고, EU시민의 8%가 제2언어로 사용한다. 프랑스어는 EU시민의 28%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그 반 이상이 프랑스인이다. 이탈리아어는 네 번째 언어로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수는 프랑스와 비슷하지만, 외국어로 사용하는 수는 훨씬 적은 2%에 불과하다. 프랑스어를 독일어나 이탈리아어 보다 외국어로서 선호한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그밖에 EU 시민의 15%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11%는 모국어로 4%는 외국어로 사용한다.

2) 참조, Europeans and Languages(2001), Report produced by INRA(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es).

2. 유럽의 반이 이미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

통계를 낼 당시(2001)에도 이미 절반에 가까운 EU시민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모국어와 다른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유럽인구의 반 이상이 이미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른 외국어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10명중 8명이 할 수 있으며,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3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 EU의 15개 회원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EU의 15개 회원국에서 모국어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다. 네덜란드, 덴마크(77%), 스웨덴(75%)은 국민의 3/4이 영어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86%)와 벨기에(38%)에서 프랑스어는 공용어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국민의 77%가 독일어를 모국어로 생각하지 않으나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많은 국민이 독일어를 쓰는 나라는 네덜란드(59%)와 덴마크(49%)이다.

1990년과 비교해서 영어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모든 회원국가에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네덜란드(+15%), 그리스(+13%),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9%)이다.

4. 알아야 할 ‘가장 유용한’ 두 언어

모국어 외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두 언어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영어, 37%가 프랑스어, 26%가 독일어라고 답했다. 15%가 스페인어를 택했고 모른다는 응답자가 14%였다. 해가 갈수록 영어가 EU의 공용어가 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5. 교육 체계에서 언어교육의 위치

1991/1992의 통계에 의하면,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플랜더스에서 초등학생의 20% 이상이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2001년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플랜더스, 그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에서

초등학생의 30% 이상이 이미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10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

외국어의 의무 교육 기간도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에서 10년 전보다 훨씬 길어졌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하나의 외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2 또는 제3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6. 가장 많이 가르치는 언어들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제1외국어는 단연 영어이고 프랑스어가 큰 차이들 두고 제2외국어의 자리를 차지한다. 초등학생의 26%가 영어를 배우고, 4%가 프랑스어를 배운다.

중등과정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외국어는 영어가 압도적이다.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중등학생의 90%이상이 영어를 배운다. 학생들의 32%가 프랑스어를, 18%가 독일어를, 8%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7.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외국어 사용 비율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비율이 대학생의 77%로부터 15세 이하에 학교를 떠난 사람들의 19%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Socio-demographic group	%	Socio-demographic group	%
Students	77%	Educated to age 16-19	44%
Educated up to 20 +	72%	Aged 40-54	43%
Managers	69%	Women	43%
Aged 15-24	65%	Manual Workers	41%
Employees	57%	Unemployed	40%
Aged 25-39	55%	House persons	31%
Self-employed	50%	Aged 55+	28%
Men	47%	Retired	26%
Average for EU 15	45%	Educated to age 15 or younger	19%

사회적-인구통계 집단을 비율로 보면, 대학생들을 비롯한 교육을 받은 계

층, 젊은이들이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 직업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생(77%), 경영인(69%), 고용인(57%), 자영업자(50%), 수공업자(41%), 가사 노동자(40%) 등의 순서이다. 반면에 연령별로 보면, 교육받은 20세까지(72%), 15-24세(65%), 25-39세(57%), 16-19세(44%), 40-54세(43%), 55세(28%) 등의 순서이다. 또한 남자(47%)가 여자(43%)보다 높다.

이 통계를 해석하면, 시간이 갈수록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장차 EU에서는 한두 가지 외국어를 더 배우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유럽연합의 언어정책

1. 유럽연합의 공식언어(2004년 5월 이후)

EU의 20 공식언어와 약자

Español	ES	Spanish	Svenska	SV	Swedish	
Dansk	DA	Danish		*Čeština	CS	Czech
Deutsch	DE	German	*Eesti		ET	Estonian
Elinika	EL	Greek		*Latviesu valoda	LV	Latvian
English	EN			*Lietuviu kalba	LT	Lithuanian
Français	FR	French		*Magyar	HU	Hungarian
Italiano	IT	Italian	*Malti		MT	Maltese
Nederlands	NL	Dutch		*Polski	PL	Polish
Português	PT	Portuguese		*Slovenčina	SK	Slovak
Suomi	FI	Finnish		*Slovenščina	SL	Slovene

2004년 5월에 회원국이 25개국으로 증가하면서 9개 언어(별표 *)가 EU의 공식언어에 추가되어 20개 언어로 늘었다. EU는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모든 법규를 20개 공식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EU의 시민은 공식언어로 EU의 기구에 편지쓰고 답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EU의 의회 구성원은 유권자들을 그들의 공식언어로 대표할 권리를 가진다. 요즈음 외국제품의 사용설명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EU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의 공식언어에 속하지 않는 모국어를 가진 EU국민

의 수가 4천만에 달하고, 유럽에는 대략 60개 정도의 토박이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기들의 언어가 공식언어가 아닌 민족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공식언어로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공식언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일랜드어 (Irish)**는 2007년 1월 1일부터 **EU의 21번째 공식언어**로 약정된 상태다.

2. 언어의 다양성 지원 - 언어의 다양성은 EU의 문화적 그리고 민주적 초석이다. 언어는 다른 문화에 대하여 문을 열어 준다. 다양한 외국어를 알면, 다른 EU 국가로 여행을 하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할 때, 문화적 접촉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많은 외국어를 안다는 것은 보다 큰 연대성을 갖게 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때문에 EU는 언어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3. 지역언어와 소수언어 보호 - 유럽에는 Basque(스페인 서부), Breton(프랑스 Brittany 지방), Catalan (Andora; Spain, France의 일부), Frisian(네델란드와 독일의 북부), Welsh (Wales 지방) 등 60개 이상의 토박이어와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비토박이어들이 있다.

EU시민의 4,000만 이상이 공식언어가 아닌 그들의 토박이어 사용하고 있다.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EU는 그들의 지역언어나 소수언어를 보호한다. 또한 그들에게 공식언어를 가르치는 일도 EU의 과제다.

4. 다언어 사용 (vielsprachig/multiligual) 권장 - 외국어를 하나만 배우라고 한다면, EU의 시민은 거의 영어를 택할 것이고 영어는 상대방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의사소통 언어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영어가 EU의 공통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EU가 스스로 미국문화에 굴복하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유럽의 문화적 풍요는 유럽 언어의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EU의 헌법은: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의 풍요를 보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백서 ‘Teaching and Learning: towards the learning society’**는 모든 EU 시민이

3개의 유럽 언어를 숙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모국어 외에 2개의 외국어를 더 배울 것을 권장한다.

3개 이상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EU에서 유럽시민의, 그리고 단일 시장의 이점을 누리고 교육적, 직업적 또는 다른 이유로 다른 나라로 움직이기 더 쉽고 좋다. 유럽문화의 역사적 깊이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모국어 외에 영어가 아닌 다른 2 외국어를, 특히 이웃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5.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일반교육과 직업교육³⁾

유럽위원회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영역에서 Lisbon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계획을 수립하였다. **Education and Training 2010**은 모든 교육활동을 유럽 수준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분야로 통합했다. EU를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역동적인 지식기반의 세계경제 영역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적 결속을 이루게 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영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다(2000.3. Lisbon).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2010은 체계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같다. **유럽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복지와 교육제도를 현대화하며, 2010년까지 교육의 질을 세계적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유럽차원에서 회원국의 협력과 경험 교환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Sokrates : 일반교육의 질과 차원을 개선하기 위한 EU의 계획

제1기 : 1995 - 1999 제2기 : 2000 - 2006

1) Comenius : 학교교육 2) Erasmus: 대학교육 3) Grundtvig: 성인교육과 기타 교육

4) Lingua: 유럽언어의 교수와 학습 5) Minerva: 교육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공학 등

Leonardo da Vinci : 직업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계획 - 평생교육

제1기 : 1994 - 1999 제2기 : 2000 - 2006

Tempus : 대학교육을 위한 초유럽적 이동 계획

1990년부터 Tempus I, Tempus II, Tempus III(2000-2006)

4. 독일의 언어정책

1. 언어보호법의 문제

3) 온라인 http://europa.eu.int/comm/education/index_de.html, Education and Training

영국이 1973년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전까지 프랑스어만이 실무언어로 사용되었고, 영어가 실무언어로 추가된 후에도 프랑스어가 우위를 차지했다. 1990년대부터 서서히 역전되더니 2000대에 접어들어 영어가 실무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위기를 느낀 프랑스는 EU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유지하고 영어의 지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1992년 Maastricht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La lang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 이어서 1994년 8월 4일 언어보호법 **Loi Toubon**⁴⁾ (Jacques Toubon)을 제정하였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모든 음악프로그램은 적어도 40%의 프랑스어 노래로 편성하고, 이 노래들의 반은 다시 ‘신인이나 신곡’으로 편성해야 한다.” “공적인 문맥에서 영어차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프랑스어 번역 없이 영어로 광고문을 작성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재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기간과 조건표기 그리고 송장과 영수증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프랑스어 사용법 제2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그림기호 등이 있으면 프랑스어 사용 의무 면제’한 소비자보호법(2001.9.20 개정)은 프랑스어 사용법 제2조를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어 표기없이 닭날개 사진과 ‘chicken wings’라고 표기한 상품을 금지할 수 있을까?⁵⁾

프랑스는 언어보호법을 통해서 프랑스어의 지위와 질을 향상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엄격한 광고규정과 상표규정은 거래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언어 체계의 EU에서 법을 어겼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분명히 EU가 지향하는 목표를 거역하는 것이다.

반면에 독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 사용에 국가의 개입을 경계한다. 언어와 문화는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각 정당의 정치가들이 프랑스와 같이 독일어를 법률로 보호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체적인 반응은 냉담했다. 2001년 1월 연방의회 토론에서 ‘독일어의 보급, 장려, 중개’라는 안건과 영어차용어의 문제에 대하여 논쟁에서 모든 당이 언어보호법을 부결시켰다.⁶⁾

Julian Nida-Rümelin 문화부 장관은 법적인 규제를 반대했다. “우리는 ‘언어보호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불어 ‘언어경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가는 살아있는 언어가 따라가는 과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법이 필요하다

4) http://de.wikipedia.org/wiki/Loi_Toubon

5) 송기형(2002), 프랑스어사용법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S. 492, 496, 498, 499, 프랑스학연구 제 23권.

6) 참고, Heinz-Günter Schmitz(2002), Amideutsch oder deutsch? - Zur Geschichte und Aktualität der Fremdwortfrage, S. 159 f. in: Das Wort, Germanistisches Jahrbuch der GUS.

면, 언어를 정치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⁷⁾

2. 독일어의 위상에 대한 반성 : EU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임에도 독일어의 위치가치를 주장하지 못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영어를 즐겨 쓰고 모국어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 데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3. 영어를 솔직하게 세계어로 인정하면서 EU회원국들과 하나의 언어문화를 반대하고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진력하고 독일어와 독일어를 홍보할 것을 강조한다. 독일어와 독일이 충분한 상품가치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이고, 사회국가이며, 세계 경제의 일익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Bach, Bethoven, Mozart, Wagner, Rihm 등 음악가, 많은 오페라들, Berlin 필하모니 교향악단 등), 철학(Kant, Hegel, Nietzsche, Marx, Habermas 등), 문학(Goethe, Schiller, Heine, Kafka, Hesse, Böll, Günter Grass 등) 등이 자랑할 만하다.

4. 독일언어위원회 Deutscher Sprachrat⁸⁾ - 독일어협회(GfdS), 독일어 연구소(IDS), Goethe-Institut가 합작하여 창설되었다. 독일에는 국가의 언어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중심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독일의 언어정책이라 할 수 있다.

1) 언어문화의 장려(국내)와 독일어의 위상 제고(국외) - 민감한 언어의식을 통해 언어문화를 국내에서 장려하고 독일어의 위상을 해외에서 공고히 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정보, 설명, 기록과 토론으로 이것을 달성하고자 한다. 2004년에는 가장 아름다운 낱말을 찾는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독일어의 풍요에 주목하도록 했다.⁹⁾

2) 국내외의 기구들과의 협력 - 독일어와 언어 일반에 대하여 보다 나은 지식의 전달과 인식을 실현시키고 언어와 언어사용에 대한 성찰에 기여하기

7) 참고, 온라인: www.dreigliederung.de/denglisch, Sylvain Coiplet(2001. 02. 11), Nida-Rümelin und der Schutz der deutschen Sprache.

8) 온라인:<http://www.deutscher-sprachrat.de>, Deutscher Sprachrat.

9) '가장 아름다운 독일어' 경연대회(2004. 08. 01) : 1위-Habseligkeiten 2위-Geborgenheit 3위-lieben
4위-Augenblick 5위-Rhabarbermarmelade

아동부 : 1위-Libelle 다득표순 (국외) : Liebe, Gemütlichkeit, Vergissmeinnicht

다득표순 (국내) : Liebe, Gemütlichkeit, Sehnsucht, Heimat, Kindergarten,
Freiheit, gemütlich, Frieden, Sonnenschein, Schmetterling

위하여 국내외의 언어 연구기관과 협력한다.

- 3) **학교에서 독일어 교육강화** - 가정과 학교 교육에 관심을 두고, 특히 독일어가 모든 종류의 학교와 학급에서 주요과목으로 수업하도록 한다.
- 4) **제1언어와 제2언어 능력향상** - 외국어 수업을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하도록 돕고 인접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외국어 수업은 유럽의 언어 다양성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모국어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 5)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독일어** - 학자들은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 발표하고 출판하지만, 국민들을 위하여 독일어로 출판하고 강의하고 독일어를 전문용어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언어 이상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 6)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 독일어의 위상을 외국에서 확립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관심사이다. 국내에서 독일어의 사용은 외국에서 언어전달과 경험으로 이어지고 또 역으로 소급시키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 7) **정치적 상담** - EU 기관의 단일어 체계 경향에 대응해서 정부를 돕는다. 연방과 주에서 언어정책의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자리에 상담기구로서 그리고 논의와 전문적 조정을 위한 심판으로 나선다.

5. 맺음말

EU는 유럽을 경제적·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유지에 전제가 되는 언어를 지키기 위해 EU는 다언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회원국이 25개국에 달하고 공식언어가 20개나 된다. 장차 회원국의 수와 공식언어의 수는 늘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늘어갈 것이다. 공식언어를 모르는 4,000만에 달하는 EU시민은 영어를 제1외국어로 택할 가능성이 크다. EU가 다언어 정책에 따라 모국어 외에 2개의 외국어를 권고하고 각 회원국들이 이를 따른다 하더

라도 영어를 선택하는 비율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영어를 제외하면, 일부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극히 일부가 스페인어와 이탈리아를 외국어로 선택하고 그 외의 언어는 거의 모국어로만 사용된다.

EU의 각 위원회들은 사무적인 편의로 또는 20개의 공식언어로 번역하는 번거로움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한다. 20개의 공식언어에 속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유럽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항상 영어나 프랑스어 등을 거쳐서 통역이나 번역이 되는데, 오류의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는 언어에 의해서 육성되는데 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다문화 Multi-Kulti’가 아니라 자국문화와 영어권(주로 미국) 문화의 ‘양문화 Bi-Kulti’로 될 것이다. 결국, 미국 문화가 EU 공통의 문화가 되고 EU는 문화적으로 미국에 예속될 위험성도 있다.

Gerhard Stickel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썼다. 50-70년 후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핀란드어 등은 단지 가족 내에서 그리고 여가 시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삶의 상황에서 일종의 **크레올 영어 kreolisiertes Englisch**¹⁰⁾가 사용되는 반면에, 유럽의 표준어들은, 영어를 포함해서(!), 민속분야에만 한정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연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EU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정책보다 EU 전체를 포괄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10) 참고, 온라인: de.wikipedia.org/wiki/Kreolsprachen, 크레올 언어란 몇 개의 언어가 접촉하는 상황에서 생긴 언어이고, 새 언어 어휘의 많은 부분이 접촉언어에 바탕을 둔다.

참 고 문 헌

- Europeans and Languages(2001): Report produced by INRA.
- Helmar G.(2001): Deutsche Sprachpolitik und europäische Identität, in: Hrsg. v. Herрман Zabel, Denglich, nein danke! Padeborn.
- Limbach, Jutta(2005): Ich liebe unsere Sprache. Berlin, den 30. 1. 2005. Rede im Rahmen der Berliner Lektionen 2005 der Berliner Festspiele.
- 온라인: europa.eu.int/comm/education/index_en.html.
- 온라인: europa.eu.int/comm/education/policies/lang/languages/index_de.html, Sprache in Europa.
- 온라인: europa.eu.int/constitution/futurum/index_de.htm.
- 온라인: www.deutscher-sprachrat.de, Deutscher Sprachrat.
- 온라인: www.dreigliederung.de/denglich, Werner Breimhorst(2004. 04. 12), Sprache und Freiheit; Sylvain Coiplet(2001. 02. 11), Nida-Rümelin und der Schutz der deutschen Sprache.
- 정시호(1998), EU의 복수외국어 교육정책, -다언어주의와 다문화주의론, 170-194쪽,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3집.